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 가덕신공항에 대한 민심 전달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김해공항 확장안 적정성 최종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은 소음과 안전, 미래 확장성 등에서 문제가 있어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2019년 12월 검증위원회 출범 후 11개월에 걸친 검증을 통해 김해공항 확장안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사)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는 김해공항 백지화와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해 2020년 한 해 동안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토론회 개최, 방송캠페인 진행 등을 통해 가덕신공항에 대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정세균 총리와 의 면담을 통해 가덕신공항에 대한 지역의 민심을 전달했다. 또 부산·울산·경남 경제계가 공항 이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는 데 역할을 하기도 했다.

부산상의 전·현직 회장, 총리 면담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는 가덕신공항에 대한 지역 민심을 직접 전달하는 소통창구 역할에 충실했다.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허용도 (사)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은 2019년 이낙연 전 총리와 의 면담에 이어 전·현직 부산상공회의소 회장들과 정세균 총리를 면담하고 김해공항의 문제점과 4.15 총선에서 나타난 가덕신공항에 대한 지역 민심을 전달했다. 허용도 상임공동위원장을 비롯한 부산상의 회장단은 현재의 인천공항 중심의 항공 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문제인 정부의 정책 기초와 상반된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24시간 안전한 관문 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제는 가덕신공항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 발표로 부·울·경 800만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24시간 운영 가능한 신공항 조성은 가덕신공항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하지만 입지선정만큼 중요한 것이 완공 시점이다. 국가 사업화로 진행되는 2030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2029년에는 가덕신공항을 완공해야 한다. 또 고사 직전에 있는 동남권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첨단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개선도 관문공항이 없으면 불가능하기에 가덕신공항 건설을 하루라도 지체할 수 없다. 사업 타당성 조사, 수요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 공항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양당에 의해 발의된 상태다. 추진위원회는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2021년 최우선 목표를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로 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대정부 건의는 물론 가덕신공항을 경제의 문제가 아닌 정치의 문제로 끌고 가려는 특정 지역과도 대화와 협의를 통해 풀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가덕신공항 건설이 단순한 공항 건설이 아니라 건설과정에서 부·울·경을 하나로 묶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 토론회, 연구 용역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



1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오른쪽에서 세번째)과 전·현직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정세균 총리(오른쪽에서 네번째)를 면담했다. 2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한철수 경남상의 회장(왼쪽부터)이 신공항 건설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반쪽 날개로는 더 이상 높이 날 수 없다

사람, 자본, 문화, 교통...
성장을 가로막는 수도권 집중,
한 쪽으로 치우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효율적이고 지속성장 가능한

가덕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이
한 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입니다

왜 가덕신공항인가?

- 안전**
총돌위험 없는 안전한 공항
- 편리**
소음 피해 없는 24시간 운영 공항
- 경제**
항공화물 연간 63만톤
- 지속가능성**
환경훼손 최소화하고 확장가능한 공항